

장수군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민생경제 회복 위해 3월 2일부터 1인당 장수사랑상품권 30만원

군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장수군이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장수군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된다.

군은 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재정예산안이 지난 23일 제34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훈식 군수가 답화문을 발표한 17일 이후 6일 만에 발 빠르게 이루어진 예산 확정으로, 민생경제 회복

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준 장수군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의 결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장수군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속한 행정절차에 돌입하여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달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이 이뤄지며, 1차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도 3월 31일까지 운영하여 읍·면 담당 마을별 출장을 통해서 신속하게 재난지원

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3년 2월 15일 기준 장수군에 주소를 둔 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재외국민거주자로 1인당 장수사랑상품권 30만원이 지급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은 지난 24일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2023년도 농업 신기술 보급 사업 추진에 나선다.

진안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지속가능한 스마트 농업·청년농업인 육성 위한 사업 추진

진안군은 지난 24일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2023년도 농업 신기술 보급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총사업비 28억 800만원 규모의 28개 사업, 118개소 대상자에 대해 심의·확정했다.

주요 추진분야는 지속가능한 농업추진을 위한 스마트농업과 지방농업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기를 심어주기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사업, 신기술·신품종 보급 등이다.

또한 주요사업으로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국내육성 신품종 고구마 육묘 지원, 양념채소 국내육성품종 보급, 이상기상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 노지과수 스마트 관수·관비 지원, 기존하우스 활용 딸기 고설 수경재배, 천마 연중생산모델 스마트팜 사업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안전면 임대사업소 신축, 실증 시범포 내 스마트온실 시설개선을 통한 실증연구와 전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과수 화상병 및 풀발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 등도 별도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조기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군 홈페이지 공지와 이장회의 등의 홍보를 통해 시범사업 신청·접수를 받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다.

고경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들에게 적극적인 기술지도는 물론 앞으로 농업 환경 변화, 소비자 기호에 맞는 진안형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공모 선정

도시인력 농촌일자리 연계·통합일자리 서비스 등 제공

무주군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23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포함 총 8억 원(국비 5억, 도비 1억, 군비 2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3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지원 조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상향해 근로자와 기업을 우대·지원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전주기전대학(무주군로컬JOB센터)을 수행기관으로 해서 도농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확대된 형태의 도시인력 농촌일자리 연계 및 통합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해갈 방침이다.

또한 무주가 일자리 낙후 소외지역, 초고령화 사회, 농업·관광업 중심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해 △농가일자리 1만 명 지원, △농가근로자는 300명, △농가 구인처는 120곳을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농가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1인당 종식비 6천 원, 간식비 3천 원을 지원한다. △도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촉진 수단 3천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김동필 과장은 "2023년은 일반 취업과 농가 일자리 지원 사업이 모두 성공을 거두는 원년

으로 삼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자리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고용률을 높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총 5개 기관(무주군로컬JOB센터(센터장 김선태)·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전라북도-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 참여했던 전라북도 도농 상생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해 234농가에 농촌인력을 지원해줬으며, 농가일자리 구직신청은 724명, 채용연계(중개)는 총 5,124건에 달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민원담당 공무원과 소통간담회 가저

장수군이 지난 24일 군청 민원실에서 최훈식 군수 주재로 '민원담당 공무원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민원창구에서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직자들의 애로 사항 청취와 민원현안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과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 현안 사항에 대한 공유와 민원부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대처법과 군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 등 친절서비스 제고를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최훈식 군수는 민원인들의 고성,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된 민원 창구의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업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원실은 장수군의 얼굴"이라며, "민원담당 공무원으로서 장수군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원인들도 어려운 시간을 내서 민원실을 방문하시기 때문에 더욱 친절할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군민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데 노력하자"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이 지난 24일 군청 민원실에서 최훈식 군수 주재로 '민원담당 공무원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3월 1일 재개장

진안군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동절기 휴장에 들어갔던 진안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를 오는 3월 1일 재개장한다.

군은 봄을 맞아 군 관광명소인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를 재개장하기로 하고, 등산로 재정비 및 배설시설 보수 등 방목객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민방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는 지난해 7월 개통식을 갖고 전국 각지에서 10만 명이 유박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진안군을 넘어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는 명도봉에서 명덕봉까지 220m 길이로 이어져 있으며 구름다리에서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운일암반일암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보는 등 자연의 경이로움



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입장료는 없고, 주차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월 11일~12일까지는 구름다리 인근인 운일암반일암 삼거리에서 진안고원 고로쇠축제도 열려 관광객들이 맛과 멋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